



Honeymoon in Spa Resort

그녀와 그, 해변에 있다면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볼 것이고,
계곡에 있다면 자연의 풍요를 바라볼 것이다.
허니문에게 따사로운 햇살과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쌓인 피로를 한번에 풀어줄 스파 서비스를 선사할 리조트 세 곳.

에디터 윤병욱(프리랜서) 자료 제공 리조트 라이프(512-1199)

하얀 백사장 위의 풍요

반얀트리 푸켓(Banyan Tree Phuket)



하얗게 펼쳐진 백사장이 방타오 만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반얀트리 푸켓. 거대 휴양지인 라구나 단지 내의 5대 리조트 중 하나로 태국의 신비한 아름다움과 반얀트리 푸켓만의 데커레이션이 잘 어우러져 있다. 중앙의 분수를 중심으로 십자형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빌라는 107개에 이르며 숨바꼭질을 하듯 곳곳에 숨어 있어 돌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허니문녀들이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에 그만이다.

반얀트리 푸켓 리조트의 객실은 저마다 취향이 다른 커플을 위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디럭스 빌라, 1베드룸 풀 빌라, 2베드룸 풀 빌라, 스파 풀 빌라 등의 4가지 타입으로 나뉘어 있고, 스파 풀 빌라의 경우 전용 스파와 개인 풀장, 자쿠지, 야외 샤워 시설 등으로 꾸며져 호화로운 반얀트리 빌라의 전형을 보여준다. 스파 풀 빌라의 가장 큰 매력은 연꽃 연못으로 둘러싸인 침실. 첫날밤을 보내는 허니문녀에

게 황홀한 밤을 선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빌라 안에만 있기 싫다면 요일별로 카누, 세일링, 코끼리 트레킹 등을 하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음식 또한 화려하고 다양하다. 태국의 전통 요리에서부터 신세대의 입맛에 맞는 독특하고 새로운 음식과 건강식까지 전문가의 손길로 만들어진 요리는 맛과 멋을 동시에 선사한다. 많은 레스토랑 중 어느 곳을 고를 것인가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도움을 청하면 입맛과 취향에 맞는 레스토랑을 추천해준다.

스파는 반얀트리 푸켓 리조트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 이곳의 스파는 마사지 요법, 유럽과 아시아 마사지 테크닉, 스웨덴식, 로미로미, 인도네시아, 타이 등 여러 나라의 고유 테크닉을 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육체와 정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테라피스트의 손길이 여행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데 큰 몫을 하지 않을까.

열대 우림의 추억
만다라 스파 보라카이 리조트
(Mandala Spa Boracay Resort)



보라카이 섬 중에서 열대 우림이 아름답게 펼쳐진 언덕 위에 위치한 만다라 스파 보라카이 리조트. 태국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꾸며진 고급스런 리조트 시설은 스파 리조트답게 고요하고 평온하다.

지난 2001년부터 보라카이 최고의 스파 센터로 운영되어온 만다라 스파가 작년 4월 빌라 완공과 함께 스파를 전문으로 하는 리조트로 새롭게 꾸며진 것.

빌라는 객실과 베란다, 욕실, 오픈 에어 샤워기와 야외 정원으로 꾸며져 아기자기하면서도 고급스럽다. 빌라의 전면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열대 우림의 아름다운 풍경이 대형 액자를 보는 것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빌라의 내부가 편안한 느낌의 원목으로 꾸며져 내부와 외부를 더욱 조화롭게 한다.

객실로 들어서면 수입 티크재의 바닥과 나무로 만든 둥근 아이의 천장이 더욱 편안한 느낌을 자아낸다. 침실에 놓인 독립형 헤드보드는 정

교한 나무 피어싱과 격자 세공이 되어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다. 욕실 또한 고급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맛이 느껴진다. 유리벽과 선반, 카운터의 검은색 화강암이 타일 바닥의 매끄러운 욕조와 잘 어울리기 때문. 벽으로 둘러싸인 욕외의 작은 정원에서 샤워를 즐길 수도 있어 휴양지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식물성 정유와 치료 허브 식물 등의 욕실 용품까지도 휴양지에 왔음을 만끽하게 한다. 메인 리셉션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프라나 스파 레스토랑'은 매일 각종 유기농 채소로 만든 건강식이 제공된다.

스파 전문 리조트에서 뭐니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스파. 쇼드하나 카르마(Shodhana Karma) 정화 의식, 스웨데나(Swedena) 스트레스 제거 마사지와 사우나, 발리 소금 빛(Salt Glow)과 만디 룰루스크럽(Mandi Lulur Scrub) 등은 엄지손가락을 세울 만한 만다라 스파의 진수.

발리 계곡으로의 초대

로열 피타마하 풀 빌라 리조트

(Royal Pitamaha Pool Villa Resort)



잠시나마 나른한 여유를 즐기고 싶은 허니문녀에게는 발리 예술의 본산지로 꼽히는 우붓 지역의 로열 피타마하 풀 빌라가 제격이다. 발리에 위치하지만 이곳에선 바다를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계곡과 강이 자연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 굽이굽이 시원하게 뻗은 계곡과 힘차게 흐르는 아용 강의 절묘한 조화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빌라는 단독 빌라처럼 84채의 풀 빌라와 7채의 로열 빌라로 나뉘어 있다. 여행객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단연 풀 빌라. 채광 유리를 통해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낙원이 따로 없다. 풀 빌라마다 넓은 개인 풀장이 마련되어 선댄과 독서 등을 하며 한가로움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둘만의 시간을 아무 방해 없이 누리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는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우거진 수풀 덕분에. 수풀 사이에 띄엄띄엄 빌라가 위치해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다. 누드 수영을 즐길 수 있

는 혼치 않은 기회가 제공되는 셈.

우스 강과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선 서구식과 발리 전통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준비되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색다른 분위기로 둘만의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은은한 촛불이 비추는 개인 풀에서의 식사가 괜찮을 듯. 분위기에 한껏 취한다면 풀벌레와 개구리가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가 은은한 재즈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계곡에서 즐기는 래프팅과 세발리 언덕 트레킹 체험이 스텝과 함께 자연과 벗하는 즐거움을 주고, 7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피타마하 리조트에서의 스파는 피로를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피타마하 스파는 아로마, 백단, 장미, 로터스, 재스민, 오렌지향 오일을 사용한 전통 발리니스 마사지로 이곳에서 가장 놓칠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다. 예약은 필수. ☎